

자동차 보험 ISSUE

:사고도 없는데 왜 내 보험료는 매년 오르나요?

계약을 갱신하는 고객 중 사고나 교통 티켓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많다.

올해 들어 자동차 보험 고객 중 절반 정도가 다른 보험상품의 조회 요청을 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사들이 예년보다 높은 보험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향후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자동차 보험이 오르는 원인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낮은 개스비로 도로에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자동차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고
2. 자동차 가격 자체가 올라서 수리비 역시 동반 상승세인 데다
3.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 클레임이 늘고 있다.

위 원인들의 영향으로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많아서 보험료가 이미 올랐거나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스 가격은 2012년에 비하면 45% 이상 저렴해지면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수가 급증했고 사고도 늘었다. 전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15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가 9.5%나 상승했다.

사고가 많아진 것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이지만 수리비용의 증가와 법정분쟁 비용 등 차 사고 관련 클레임 액수 규모가 급증한 게 더 주요한 요인이다.

가주의 경우엔 업체마다 인상 시기가 다르고 인상폭이나 운전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인상폭이나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평균 6.9% 정도의 인상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들이 일괄적으로 인상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보험사는 매년 조금씩 인상하거나 수년 동안 인상하지 않다가 한번에 올리는 보험사들도 있어서 평균 얼마가 오를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또, 운행기록, 나이, 사는 지역, 운행 거리, 젊은 운전자 포함 여부, 보유 자동차 수 등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해 보험료 인상폭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맞을 것이다.

2016
November

Helping You
Live Your Life.

News Letter

보험상품 안내

EPLI 보험

EPLI 커버리지는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본인이 직장 안에서 나이, 부당하고, 성차별, 성희롱 등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또는 고용주의 비즈니스 운영시 고용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클레임하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1. 보험회사의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적당한 액수의 EPLI보험을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
2. 고용지침서를 만들어 회사의 직원 고용, 해고 원칙을 포함해 고용주가 직원에게 기대하는 자세한 업무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또 모든 직원들이 이 지침서를 읽고 동의하는 것에 대한 서명을 받고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보관해야 한다.
3. 각 해당 부서 직원의 기술이나 업무성과의 기대에 대한 확실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4.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업무성과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고, 직원의 파일에 기록을 해야 한다.
5. 지원자를 인터뷰하기 전에 심사숙고해 적합하지 않은 신청자는 서류심사에서 걸러내고 인터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원자의 백 그라운드 체크(Back Ground Check)도 포함된다.
6. 종업원들이 제시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기록을 하고, 회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모두 기록에 남기도록 한다.

EPLI는 Claim made보험으로 사고가 난 시점이 보험을 가입한 날 이후여야 하며, 클레임하는 시점에도 계속 보험의 효력이 있어야 한다. 보험이 재계약되지 않았거나 끊어진 상태라면 사고에 대한 커버리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가 2008년 10월1일에 보험을 처음 가입하였고 2013년 현재 보험이 효력이 있다면 2008년 10월1일~현재 발생한 모든 사고는 커버가 된다. 그런데 가입자가 2014년 이후로 보험을 해약한 상태라면, 2008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더이상 커버되지 않는다.

EPLI는 비즈니스 보험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선택을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원하는 보험의 액수에 따라서 비즈니스 보험에 추가 시킬 수도 있고 별도의 보험가입도 가능하다.

재미있는 스포츠 상식

시카고 염소의 저주

LA에 패배를 안겨준 시카고 컵스에 저주가 있다?

야구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주이며 밤비노의 저주가 풀린 시점에서 가장 오래도록 남아있는 저주.

1940년대 그리스계 이민자로 시카고 컵스의 열성팬이었던 빌리 시아니스는 애완염소를 가족처럼 아껴서 컵스의 홈구장인 리글리 필드로 데려가서 같이 경기를 관람했다. 1945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월드시리즈 4차전 열리자 염소의 표까지 끊어서 경기장에 들어갔고 4회까지 관람했다. 그런데 구단주 필립 K리글리가 염소의 악취가 풍긴다며 퇴장할 것을 요구했고 관람중에 불안간 쫓겨나게 된 그는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이 저주했다. "컵스는 더 이상 우승을 못할 것이야. 리글리 필드에 염소를 입장시키지 않는 한 다시는 월드 시리즈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 해 월드 시리즈에서 3승 4패로 우승에 실패한 컵스는 월드시리즈 진출은 물론 100년을 훨씬 넘어 아직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



- Auto
- Commercial
- Worker's Comp
- Home
- Life
- Health

